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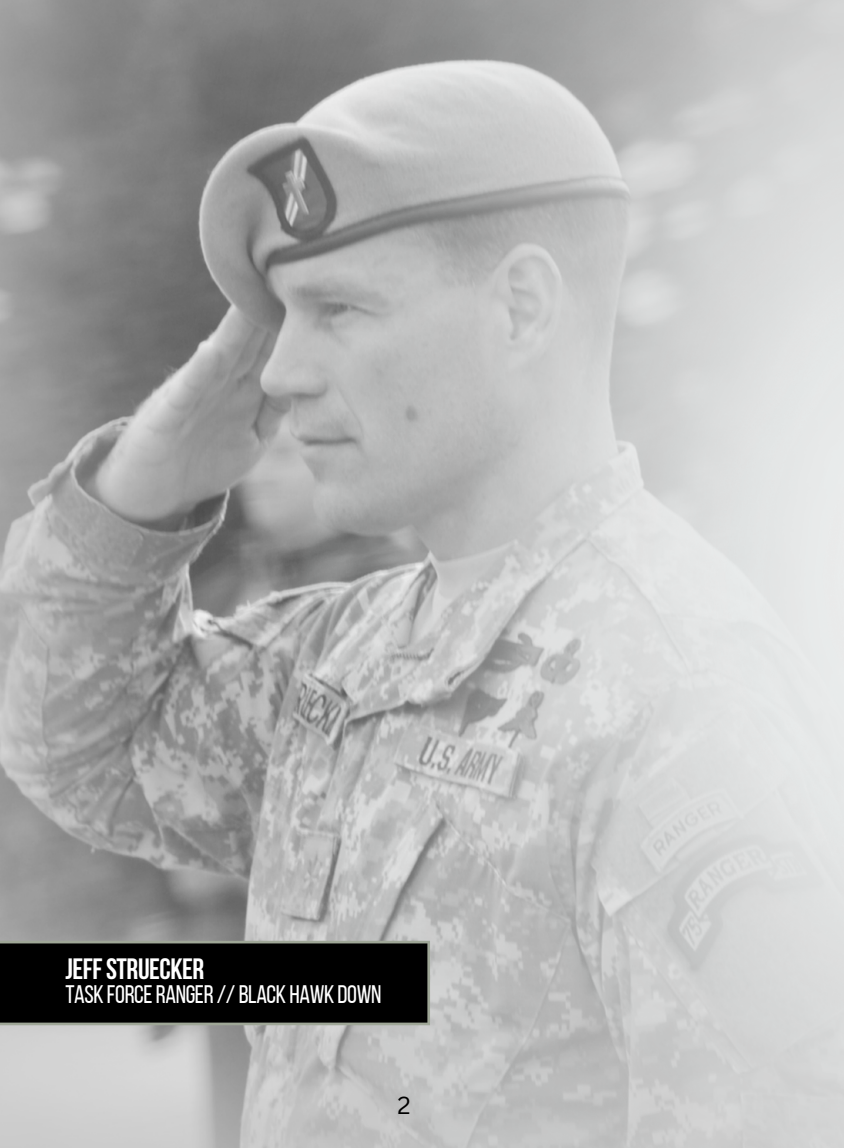


jeff  
struecker CRU<sup>+</sup>

# 방탄 믿음

**JEFF STRUECKER**

**U.S. ARMY RANGER HALL OF FAME**



**JEFF STRUECKER**  
TASK FORCE RANGER // BLACK HAWK DOWN

## 방탄 믿음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책과 영화로 유명한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사건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제가 군 입대 담당자를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군에서 가장 힘든 부대와 보직이 무엇인가요?" 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공수부대 레인저죠." "그렇다면 저는 공수부대 레인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 목표

군에 입대한 때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훈련 실력을 시험해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인 '정의의 이유(Operation Just Cause)'와 이후 쿠웨이트 작전인 '사막 폭풍(Operation Desert Storm)'에서 저는 총에 맞고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소말리아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엔은 이 동아프리카 국가의 굶주린 국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에는 여러 군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유엔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한 군벌인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는 유엔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매복했다가 습격하며 유엔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습격에서 그는 파키스탄인 24명을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켰습니다.

제가 속한 태스크 포스 레인저의 목표는 아이디드를 체포하고 그의 핵심 인물들을 데려와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3일과 4일의 마지막 임무에 앞서 태스크 포스 레인저는 여섯 번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 호크 다운으로 불리는 일곱 번째 임무에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 더컨보이

저는 24살의 분대장이었고 9명의 병사들을 험비 두 대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1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지상 호송대를 이끌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호송대의 임무는 헬리콥터로 목표 건물 옥상과 주변 골목에 떨어진 레인저와 특수작전부대원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포로들을 우리 기지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타고 있던 레인저 토드 블랙번이 슬라이드 로프를 놓쳐 70피트 아래로 추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작전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먼저 부딪혔고 의료진은 즉각적인 특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관이 전화를 걸어 저에게 토드를 공항에 있는 우리 기지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험비에 싣고 제 차량 두 대와 함께 비행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가디슈는 약 7\*2마일 크기로 소말리아 전역에서 15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 필라의 죽음

비행장으로 향하는 하울와디그 로드 모퉁이를 돌았을 때,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옥상과 출입구, 창문에서 우리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차량 양쪽에 레인저를 배치했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기관총 사수인 도미닉 필라 병장이 제 뒤에 앉아 험비 오른쪽에 있는 목표물을 쏘고 있었죠. 제가 본 사람 중 총을 제일 잘 다루는 도미닉이 제 뒤에 앉아 험비의 오른쪽의 타겟을 목표로 삼고 총을 쏘았습니다.

적의 총알과 수류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소말리아 총잡이 한 명이 도미닉에게 AK-47 소총을 겨누었습니다. 두 명이 서로 방아쇠를 당겼고, 동시에 죽었습니다. 필라는 이마에 총을 맞고 레인저 팀 모이니한의 무릎에 쓰러져 즉시 사망했습니다.

팀은 충격을 받고, 자제력을 감당하지??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트루커 병장님, 도미닉 필라가 총에 맞았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그가 죽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차량 뒷면 전체가 필라의 피로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험비에 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모이니한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팀, 도미닉을 대신해서 오른쪽에 있는 목표물들을 모두 제거해. 자네가 우릴 살려야 해." 저희는 비행장으로 다시 돌아왔고, 저는 '주님,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 뒤로가기 "돌아가다"

의사들이 토드 블랙번의 시신을 꺼내고 필라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을 때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가 격추당했다. 부하들을 데리고 도시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탄약과 연료를 더 달라고 요청하고 차량에 묻은 도미닉 필라의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소사, 전 오늘밤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 상황에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았고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갯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 순간 저는 13살에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살든 죽든, 저는 하나님의 손에 굳건히 붙잡혀 있다는 것ですよ.

아내인 던이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왔었습니다. 다시는 아내를 볼 수도, 아이를 안아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면 저는 가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나의 구세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4:26-29

## 두려움 없음

그 순간부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든 죽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제 병사들 중 더 이상 한 명이라도 더 죽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짐을 싣고 있는데 제 부하 중 한 명인 브래드 토마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사님, 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집에 아내와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러 나갈 수 없습니다."

"브래드, 무서운 거 아네. 나도 무섭네. 우리 모두 두렵네. 사실 자네가 두렵지 않다면 심리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일세. 하지만 브래드, 겁이 난다고 해서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영웅과 겁쟁이의 차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네. 내가 자네를 전투에 참여시키진 않겠지만 난 자네가 필요하네."

저는 그를 내버려두고 제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브래드가 무기를 집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임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차를 몰고 정문을 나설 때 제 가슴이 뿌듯함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두번째로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소말리아인들은 교차로마다 도로를 막고 타이어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무기와 유탄 발사기를 발사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 대원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는 한 무리의 레인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차량이 심하게 충격을 받았습다. 몇 명은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차가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 차량에 싣고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안전하고, 모두를 구했어! 우린 괜찮아!"

## 다시 돌아가기

그러자 지휘관이 우리 병력의 절반이 아직 도시에 남아있다고 말했고, 세 번째로 우리를 돌려보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군에게 탱크와 장갑차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파키스탄 탱크 두 대와 말레이시아 장갑차를 포함한 거대한 호송대가 모였습니다. 소말리아인들은 장갑차와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탱크가 주요 도로를 따라 내려오자마자 모든 소말리아 무기가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2시간 동안 호송대는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대원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혐비는 마지막 탱크를 따라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탱크가 우리보다 먼저 떠난다니?' 나는 기관총 사수 브래드 폴슨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갈 테니 당신의 총을 뒤로 두게.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적이니까."

약 1마일을 운전하고 있을 때 브래드가 "병장님, 우리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15명의 미군 병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좌우의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쏘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5명의 병사를 도시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제 앞차량에 타고 있던 소대장과 저는 호송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후진하여 병사들을 신고 보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기장에서 본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총알이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함께 복무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말리아에 가기 훨씬 전부터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고, 제 신앙을 그들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10월 4일, 전투로 단련된 레인저들이 많은 질문들을 가진 채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신이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방금 죽은 제 친구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그 도시로 돌아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고 잠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대신 죽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완전한 결과,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당신이 영생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로 인해 용서받은 채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 정죄받은 채로 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영원히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구하면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삶에 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 걸 제가 압니다. 약속대로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27

\*\*요한 3:17-18

# 저를 써주세요

당신이 그 기도를 했다면  
P.O. Box 1451 포트슨, 조지아,  
31808.

**WWW.BPFAITH.COM**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귀중한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방탄 믿음 © 2023 Cru. 판권 소유. 개인의 비상업적 인 사역 사본은 허용됩니다. 원래 Bullet Proof Faith © 2002, 2013, 2023 Cru로 영어로 인쇄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http://www.bpfaith.com/>



**WWW.BPFAITH.COM**



# 방탄 믿음

“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구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은 자살입니다.

jeff  
struecker cru

WWW.JEFFSTRUECKER.COM

